

소상공인 “‘최대 9일’ 설 연휴 대목 기대됩니다”

은누리상품권 환급 등 전통시장 행사에 상인들 분주해져 일부는 “인건비 너무 많이 들고 매출 타격...차라리 쉬 것”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대 9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목’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뜸 끊겼으나 명절 분위기로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다. 한편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은 긴 연휴 기간 때문에 매출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등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노리고 상품을 다량 확보해 놓고 있다. 고물가에 상품 매입가격도 올라 부담스럽지만,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손님이 부쩍 늘고 활기가 들 것을 생각하니 기쁜 마음으로 상품을 들여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설 전후로 전통시장 행사를 열 예정이라 상인들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20년동안 축산물 판매를 해 온 신기철(52)씨는 “요즘 설에는 제사도 안 지내고 여행을 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지만, 그래도 명절 당일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며 “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축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했는데, 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서구 양동시장 상인 위길임(여·79)씨도 “요즘 매출이 옛날같지 않긴 하지만, 올해는 명절이라고 환급 행사도 열리니 오랜만에 설 ‘대목’이 올 것 같다”며 “연휴 동안 6만원어치 사면 2만원을 돌려주는데, 경기가 안좋은만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발길이 몰릴 것”이라고 했다.

연휴가 길어도 꾸준히 매출을 낼 수 있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연휴 동안 장사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북구 용봉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홍연지(여·32)씨는 “쉬는 날이면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길다 보니 월요일만 빼고 쉬지 않고 장사를 할 생각이다”며 “요즘은 방문 매출보다

배달 매출이 더 큰 상태여서 연휴가 긴 것이 오히려 ‘대목’이 된다. 이번 연휴에도 설 틈이 없을 것 같다”고 웃었다.

달라진 명절 문화로 명절에도 대목을 기대하기 힘든데 연휴도 길어 걱정이라는 상인들도 있었다. 남구 봉선시장에서 족발을 판매하는 강신우(68)씨는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우리가 비교적 장사가 잘 된다는 평을 듣는데, 정작 매출은 예년보다 20~30%씩 떨어졌다”며 “불경기로 서민들이 모두 힘들어하는데 명절이라고 특별히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 끝을 흐렸다.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연휴 동안 가게 문을 닫겠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뛰는데 연휴라고 매장을 찾는 손님마저 줄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구 상무지구에서 셀러드 가게를 하는 30대 여성 전모씨는 “대체 휴일이 추가되기 전에는 그래도 연휴 동안 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대 9일 연휴로 쉬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휴 동안 가게 문을 잠깐 닫기로 했다”며 “저번 추석만 해도 매출이 30~40% 떨어졌는데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토로했다.

북구 용봉동에서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 온 김화자(56)씨는 “안그래도 요즘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설처럼 연휴가 길면 다들 해외로 여행을 가버리는 지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뜸 끊겨버리는 것이 현실이다”며 “풍당풍당 연휴라면 모를까, 긴 연휴가 있으면 그 날 장사는 망한다고 봐야한다”고 혀를 찼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설 명절을 앞둔 23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민주묘지 1·2묘역 통합... 3900여기 묘 추가

2묘역엔 납골당·주차장 유족회 “의견 수렴 미흡”

국립5·18민주묘지가 국립묘지 승격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예고<광주일보 2022년 9월 2일자 6면>한데 따른 묘지 확장 계획의 큰 틀이 잡혔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는 23일 광주시 북구 온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립5·18민주묘지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묘지 개선안은 이용률이 낮고 침수 문제가 불거졌던 2묘역을 1묘역과 통합해 묘 4000여기를 추가 확보하고, 이장을 마친 2묘역 공간에는 주차장과 납골당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립

5·18민주묘지는 총 1996기의 묘 중 1018기에 유공자 시신이 안장돼 있으며, 생존 유공자 3400여 명의 시신이 묻힐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묘역 확장의 제1안은 추모탑이 있는 참배광장(추모탑 앞 광장)을 묘역으로 바꿔 최대 6000여기 묘를 조성하는 안이다. 제2안은 참배광장 일부를 묘역으로 바꾸고 3900여기 묘를 추가하는 안이다. 제3안은 1묘역 뒷면의 산지(사유지)를 매입해 묘역을 조성하는 안이나, 경사도가 심해 최소 5만㎡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터라 타당성이 낮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민주묘지사무소는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보훈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방침이

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8년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립5·18민주묘지 측에서 유족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고 독단적으로 개선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5·18유족회는 “2묘역 이장과 1묘역 확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묘지의 역사적 상징성과 5·18의 정체성인 광장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법대 국립5·18민주묘지 소장은 독단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오월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설 연휴 ‘눈눈눈’

27일 눈 최고 5cm...28~31일 눈 많고 강추위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27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의 기온이 푹 떨어지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23일 예보했다.

26일까지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최고 기온 10도 내외로 비교적 온화하겠으나, 27일부터 상층기압골과 저리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찬 공기가 남하하고 많은 눈이 내린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27일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5cm

눈 또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전남 남부 지역에는 1cm 눈 또는 1mm 비가 내리겠다.

구체적인 적설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기상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본격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4일부터 27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4도·낮 최고기온은 8~13도에 분포해 평년보다 2~7도 가량 높겠으나, 28일부터 31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1~7도·낮 최고기온은 3~6도로 기온이 푹 떨어지겠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31사단 부대 이전 ‘시동’... 연구용역 착수

광주지역 오랜 숙제였던 31사단 부대 이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된다.

광주시 북구는 다음달부터 제31보병사단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북구가 자체적으로 31사단 이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1보병사단 부지는 1955년 북구 오치동, 삼

각동 일대로 이전한 후 광주·전남지역 방어임무 수행을 위한 향토사단 역할을 하고 있다. 부지면적은 147만 7000㎡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문제, 도시 균형발전 장애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이어져 이전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2014년 사단 사령부와 유격훈련장 부지를 시 경제지역인 외곽으로 이전

하겠다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북구는 31사단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이 완료된 후 적합한 부지 개발방향,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 부지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북구는 용역을 통해 31사단 현재 부지 활성화 장소적 가치 창출을 과업으로 삼고 활용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지 주변현황을 분석하고 이전부지를 활용한 타지역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민 중심, 으뜸 정읍

2025년 정읍시 핵심 운영 방향

1.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 경제 도시**
2.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3. 미래기반산업 육성으로 앞선 **첨단 도시**
4. 도농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도시**
5. 삶에 온기를 더하고 누리는 **건강한 도시**
6. 사람중심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도시**

